

#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 군산시,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 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추진... 27일까지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격정없는 지역경제 △합계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하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행위 단속·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임산물 분야 점검은 관련 부서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설 명절 행여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약 1억 547만 원의 위문 성·금품이 모금되었으며 이를 가지고 관내 저소득 세대 1,30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현금 지급 △군산사랑상품권과 백미 지원 △설 명절 식품꾸러미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을 준비해 '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귀성객을 위한 '행복한 고향 나들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도 가동했다. 우선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일 동안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 1일 2회(오전 11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일일상황보고'를 실행하고 교통사고 대비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망도 유지한다.

연휴를 틈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안전 관련 대책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책임진다. 담당 부서는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며, ITS(지능형교통체계) 시설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주요 교차로 소용정보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 지역이나 산간의 벽지 오지를 방문하는 주민이나 귀성객을 위해서는 '행복콜버스'가 가동된다.

수요에 맞게 탄력적(광방식/콜·노선)으로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손님을 맞는다. 운행지역은 총 7개 방면(회현, 임피, 서수, 대야, 옥구, 옥서, 옥도비안·두리도)이다.

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로 군산시를 찾는 귀성객을 위해서는 유료 공유주차장(신유2주차장, 장자(가·나)주차장, 조촌동 유료주차장, 수송

4·5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설 연휴 발생할 민원을 담당할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도 16일~18일까지 문을 연다.

도로·교통·수도·하수·청소·보건·환경·식품 등 8개 분야 48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은 사건·사고, 생활민원 처리 등을 맡아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

시민이 일반전화(☎ 120)와 휴대전화(☎ 063-120)로 민원을 신청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반 및 상황실은 연휴 기간 청소대책반을 운영해 민원 최소화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보건지소·진료소를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도 날짜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진료 가능 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군산시청·보건소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 익산시립도서관, 봄학기 평생학습 문 활짝

### 7개 시립도서관서 성인 강좌 25개 · 어린이 강좌 23개 운영 12일 · 20일부터 도서관별 프로그램 참여자 선착순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배움이 꽃피는 평생학습의 장을 활짝 연다.

익산시는 지역 내 7개 시립도서관에서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인 대상 '열린시민교양강좌'는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25개 강좌로 이뤄졌다. 유아·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문화프로그램'은 독후활동과 문화 체험 중심의 강좌 총 23개가 진행된다.

열린시민교양강좌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lib.iksan.gov.kr)에서 영등·부송·유천·금마·황등도서관은 오는 12일, 모현·마동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하면 된다.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대상 문화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모현도서관은 초등학생 대상 꿈지락 아틀리에와 3~7세 위한 오감 체험 프로그램 '물랄라 유채원'을 운영하며, 마동도서관은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노스쿨데이와 미취학 아동 대상 '북돋움' 강좌를 준비했다.

영등시립도서관(영등·부송·유천·금마·황등도서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꿈 놀이터'와 초등 저학년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독서토론 프로그램 '어린이 북돋움'을 운영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직원들, 지역 7개 전통시장서 장보기 동참

익산시 전 공무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 이후에도 전통시장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과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북부·익산장, 남부·구시장, 중앙·매일·서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

또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는 장보기 특별기간인 이달 2~18일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다이로움 1만 원을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관리 총력

익산시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하며 기동청소반(청소대행업체)과 실시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생활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연휴 전인 오는 13일까지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2개 읍면동에서는 공무원과 자원단체, 주민이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 지역 곳곳을 정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특구 효과'로 농생명 사업화 전진기지 구축

### 익산시, 전북연구개발특구 신규 편입... 국가식품클러스터·대학·산단 1,727km² 규모

익산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신규 편입되며, 농생명 분야의 '혁신 기술사업화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이번 지정은 지역의 우수한 연구 자산을 실제 산업과 결합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규 편입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는 총 1,727km² 규모다.

원광대학교부터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 연구시설 부지 △제3일반산단 확장부지 △제4일반산단을 아우르는 익산 곳곳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지구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기반'과 '생산 기반'이 한곳에 집적했다는 점이다. 대학과 연구소에

서 개발된 농생명·식품 기술이 산업 단지 내 기업으로 즉각 이전되며 시제품 제작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익산 지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농생명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 등 인근 지역의 연구 성과물을 익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화하고 사업화함으로써 특구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파격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구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실증 과제 기획 등 '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기술 기반 기업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우수 기업 유치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사업 공모 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확보와 대형 과제 연계에서 독보적인 유리함을 갖게 된다. 이는 익산의 바이오·농생명 산업이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격상되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이재춘 기자

## '설 연휴 미식 관광도시 군산으로 오세요'

### 꽃게장 · 박대구이 정식 · 짬뽕 등... 미식 관광객 관심 높아

최근 미식관광이 여행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연휴를 맞아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향토 음식과 지역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군산만의 미식 자원을 앞세워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제일 먼저 추천한 군산의 미식 재료는 꽃게로 만든 꽃게장이다. 박대도 군산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생선'이다.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고,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도 올라 소로 자리 잡으면서, 연휴를 맞아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미식은 짬뽕이다. 이외에도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꽃게장 정식 △아이쥬 △바지락갈국수 △물메기탕 △우럭매운탕 등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들도 군산 바다의 매력을 한 상에 담아냈다라는 평과 함께 사랑받고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